

『醫鑑重磨』의 판본 및 구성에 대한 연구

권오민, 박상영, 한창현, 안상영, 김진희,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the Editions and Composition of *Uigamjungma*

Ohmin Kwon, Sangyoung Park, Chanhyun Han, Samuel Ahn, Jinhee Kim,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Lee Gyujun put forward Buyang as core medical tenet, which has been one of the prominent medical theories since around the first decade in the 20th century. He wrote two major medical books except for small kinds: *Somundaeyo*(素問大要) and *Uigamjungma*(醫鑑重磨).

Until recently, studies on that theory have tended to focus on examining *Somundaeyo*. However, study on *Uigamjungma* is equally as important and is to be done as that on *Somundaeyo*. This is because the former is rather clinically oriented as the latter is theoretical so that the two is twins of one medical theory, in other words the other side of a coin.

There are four versions of *Uigamjungma* editions: the first edition in 1922 by wooden block; one with annotation and Korean translation by Park Heesung; one edited and manually transcribed by Lee Wonse(李元世); and Daesung publisher's in 2000.

Lee Gyujun revised medical theories, prescription, and herbology extracted not only from *Donguibogam*(東醫寶鑑) as well known wide, but also from *Bangyakhappyeon*(方藥合編) and *Gyengakjeonse*(景岳全書), based on the Buyang Theory(扶陽論).

Keywords : Lee Gyujun(李奎峻), Buyang Theory(扶陽論), *Uigamjungma*(醫鑑重磨), *Bangyakhappyeon*(方藥合編), *Donguibogam*(東醫寶鑑)

I. 서 론

李奎峻은 유학, 의학, 그리고 사회사상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중 의학과 관련하여 대표적 서적은 바로 『黃帝內經素問大要』와 『醫鑑重磨』이다. 『素問大要』

는 4권 2책으로 1904년도에 저술되어 190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목판 인쇄로 처음 간행되었다. 『黃帝內經素問』은 『素問』 81편의 문장을 扶陽醫學的 견지에서 25편으로 수정·요약하였기 때문에 의학의 기본 이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의감중마』는 『東醫寶鑑』을 부양의학론에 맞게 요약·산정하고 간간히 저자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지은 의학 임상서이다. 즉 이규준은 『의감중마』에 대하여 『黃帝素問大要』에서 밝힌 자신의 부양의학적 견해를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책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황제소문대요』가 기초이론편이라면 『의감중마』는 임상활용편이

■ 접수 ▶ 2010년 2월 12일 수정 ▶ 2010년 3월 29일 채택 ▶ 2010년 3월 30일
■ 교신저자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Tel 042-868-9441 Fax 042-863-9463 E-mail anwer@kiom.re.kr

라 할 수 있다.

이규준의 부양의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김적이 선구적으로 이규준의 생애와 의학에 대하여 당시로는 혁신적인 방법인 인터뷰기법은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하였고,¹⁾ 김중환은 『素問』 원문과 『소문대요』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이규준의 부양의학이 清代 張介賓의 腎命門說과 달리 心君火와 脾土의 기능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²⁾ 황원덕은 朱熹의 『周易』 해석을 기반으로 이규준의 부양의학의 철학적 기반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內經』의 君火相火理論과 『難經』의 命門學說에 근거한 학자들의 補陰抑陽, 扶陽抑陰과 이규준의 부양론을 『內經』과 『周易』의 관점에서 비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³⁾ 김창건이 『황제소문대요』의 編制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⁴⁾ 중국학자 錢超塵은 『소문대요』에 대한 판본 연구에서 明代에 刊行된 顧從德本 『소문』이 『소문대요』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소문대요』의 手抄本에는 訛傳된 글자가 많아 刊行本 및 『소문』의 원문과 대조하여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권오민은 부양론과 조선 후기 철학의 연관성과 이규준 철학의 역사적 계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⁶⁾ 김남일은 최초로 이규준의 부양의학에 관한 영문 논문을 발표하여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⁷⁾ 다만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문대요』에 대한 연구이거나 이에 기반한 부양의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의감중마』에 대한 연구, 또는 이에 기반한 부양의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사실 『황제내경소문대요』와 『의감중마』가 이규준의 부양의학의 양대산맥이라는 점에서 이규준의 부양의학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의감중마』에 대한 연구도 『황제내경소문대요』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의감중마』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와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의감중마』를 통해 이규준의 부양의학을 바라보는 향후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醫鑑重磨』의 板本

현재 『의감중마』의 판본은 4종이 알려져 있다. 1922년 목판으로 초간되었고, 이규준의 제자로 알려진 南谷 朴熙姓이 1981년 현토를 달고 출간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無爲堂 李元世가 스승의 의학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동의보감』 편제에 보다 유사하게 편집한 판본이 현재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1999년에 대성의학사에서 무위당본을 가지고 이원세가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녹취, 정리한 강의안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2000년도에 대성의학사에서 초간본을 현대적 출판물로 다시 출간하기도 하였는데, 초간본의 착간 부분을 다수 교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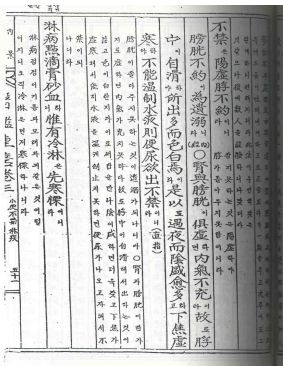
초간본은 3책 6권으로 1922년 대구의 石齋 徐丙五가 경상북도 영일군(현재 포항시)에서 발행하였다. 목판으로 출간하였으며 약간의 오탈자가 보인다. 초간본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그 후 제자인 南谷 朴熙姓이 1981년에 1책 6권으로 필사하여 출간한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전체적 배치는 『의감중마』 원문에 현토를 붙였고 여기에 한글 번역문을 달아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Figure 1> 『의감중마』의 이규준 서문 뒤에 박희성이 자신이 작성한 ‘醫鑑重磨解譯原委’를 삽입하였는데 여기에서 세대가 바뀌어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국문 현토를 달고 한글 번역을 실었다고 밝히고 있다.

초간본과 달리 「蟲有三尸辨」을 제외한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3편을 「內經素問附說」으로 묶어 권2로 처리하였다.⁸⁾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질환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초간본 권2에 배치되어 있던 약성기는 권5와 권6의 「局方類選篇」의 상단에 재배치하였다. 원래 권5와 권6은 3단으로 나누어 질환별로 절을 나누고 절 내에서 처방의 방제 원리에 따라 상·중·하통 3단으로 처방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박희성은 여기에 약성기를 첨부하기 위해 맨 위에 단을 하나 더하여 4단 구성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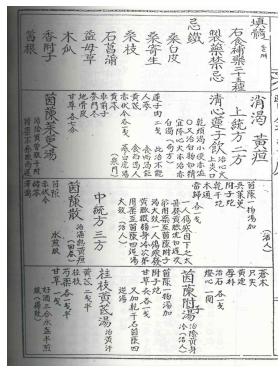
1) 김적. 「李圭峻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9.
 2) 김중환. 「『소문대요』의 저작동기와 석곡의학의 득실」.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17(4).
 3) 황원덕. 「석곡 李圭峻의 부양이론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3).
 황원덕. 「석곡 李圭峻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1999;12(2).
 4)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研究」.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2007.
 5) 錢超塵. 「『素問大要』 研究」. 『대한원전학회지』. 2006;19(3).
 6)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권오민. 「石谷 李圭峻의 人間觀과 醫學論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0.
 7)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학회지』. 1996;10(1).

8) 『素問大要』 卷2 「素問附說」에는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등이 들어가 있는데 『醫鑑重磨』 초간본에는 「素問附說」이라는 제목은 보이지 않는다. 남곡본에서는 이를 다시 「內經素問附說」로 묶어서 권2에 두었다.

로 변경하였다.<Figure 2> 다만 이규준이 작성한 약성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의 출입이 있다. 이 체제는 우리나라에서 『方藥合編』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것인데 이후 우리나라 많은 의사가 이를 따르고 있다. 이 판본은 끝부분에 ‘附石谷神方’이라는 부록을 달아 이규준의 처방을 기록하고 있고, 이 절 끝부분에 松隱, 石村, 南谷 등의 제자의 경험방도 함께 실고 있다.⁹⁾ 이는 『증보방약합편』의 후반부에 다양한 증보방이 첨부되어 있는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박희성은 ‘해석원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을 ‘法定醫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들 서적은 바로 음을 조장하고 양을 깎아 내리고 있어 『내경』의 본래 경지와는 상반된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 그러면 서도 『의감중마』는 『방약합편』의 편제를 따라 재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실용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규준이 『의감중마』의 서문에서 밝히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Figure 1> 南谷本 『의감중마』



<Figure 2> 南谷本 『의감중마』 권6, 局方類選篇下

현재는 무위당 이원세가 「百病總括篇」과 「局方類選篇」만을 재편집하여 필사한 판본이 많이 알려져 있다. 무위당 판의 특징은 『동의보감』의 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각 병증의 아래에 바로 그 병증에 맞는 처방을 바로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판본에서는 권5·6의 ‘국방류선편’이 따로 필요치 않게 되었다. 대성의학사본은 초간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활자본으로 편집하여 정갈하게 보이고, 다수의 오탃자를 교정하였다. 초간본과 남곡본을 표로 작성하여 보면 두 본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9) 안상우. 고의서산책154. 민족의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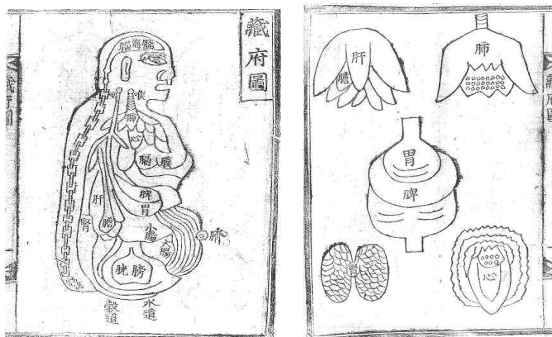
10) 李奎峻(박희성 편·현토). 『醫鑑重磨』. 『醫鑑重磨解譯原委』. 1981.

<Table 1> 『醫鑑重磨』 初刊本과 南谷本の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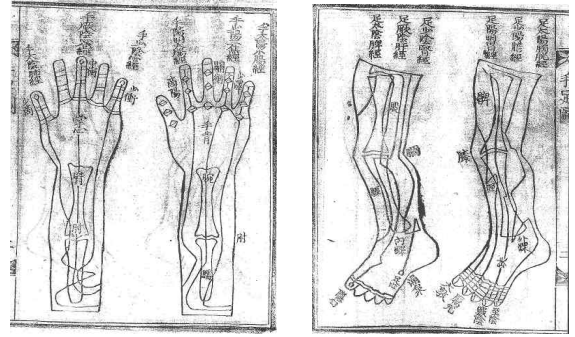
編制	初刊本	南谷本
序文 등	醫鑑重磨序 卷首 醫門入式	醫鑑重磨序 醫鑑重磨解譯原委 卷首 醫門入式
卷之一	稽經藏府篇 藏府陰陽 藏府配合 五藏體用 六府傳受 五藏主時 五藏有官 藏府所司 身形所屬 氣血榮衛 男女精胞 精盛有子 陽蜜能壽 五藏中邪 五藏病證 六府病證 藏府病虛實 藏府病異證 藏府病問甚 五藏病傳升 五藏病治法 太陰陽明 風論 熱論 學痛論 虐論 厥論 病機 附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蟲有三尸辨	稽經藏府篇 藏府陰陽 藏府配合 五藏體用 六府傳受 五藏主時 五藏有官 藏府所司 身形所屬 氣血榮衛 男女精胞 精盛有子 陽蜜能壽 五藏中邪 五藏病證 六府病證 藏府病虛實 藏府病異證 藏府病問甚 五藏病傳升 五藏病治法 太陰陽明 風論 熱論 學痛論 虐論 厥論 病機
卷之二	藥性歌	內經素問附說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卷之三	百病總括篇上 外感 內傷 內景	百病總括篇上 外感 內傷 內景
卷之四	百病總括篇下 外形 雜病	百病總括篇下 外形 雜病
卷之五	局方類選篇上 外感 內傷 內景 外形	局方類選篇上 外感 內傷 內景 外形 藥性歌
卷之六	局方類選篇下 雜病 製造 雜方 諸傷 解毒 食忌	局方類選篇下 雜病 製造 雜方 諸傷 解毒 食忌 藥性歌
附錄		附李石谷方

III. 『醫鑑重磨』의 構成

이규준이 출하기 1년 전인 1922년에 목판으로 초간된 『의감중마』는 내용상으로 「醫門入式」, 「稽經藏府篇」, 「藥性歌」, 「百病總括篇上·下」, 「局方類選篇上·下」의 5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서지학적 편제로는 6권 3책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책은 가장 먼저 序文이 나오고 이어서 目錄, 「歷代醫方」이 이어진다. 이어 首卷이라는 별도의 작은 장을 두어 여기에 「醫門入式」을 배치하였다. 뒤이어 권1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권2로 끝난다. 서문에서는 『의감중마』를 저술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고, 「역대의방」에서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의서들은 간략하게 재인용하여 편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의보감』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張介賓의 『類經』이 역대의방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의문입식」에서는 의학의 기초이론과 용어인 五行, 上生相克, 五行歸屬 등을 표 형식을 빌려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12經脈과 任·督脈 등의 경락 순행을 한시의 七言詩 형태로 정리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고, 이어 『靈樞』를 인용하여 12경맥과 임맥과 독맥의 해부학적 순행경로를 요약적이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難經』을 인용하여 帶脈과 衝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藏府圖」를 비롯한 도해를 한자리에 모아두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Figure 3, 4> 이는 『의감중마』를 저술한 동기가 의학 초심자들이 의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규준이 그의 철학에서 중요시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要約인데 의학에서도 의학원리와 방책의 요약 정리를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약정신은 그의 철학에서 의학까지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 사상이다. 「石谷心書」의 편제도 매우 간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모아놓았듯이 『의감중마』도 꼭 환자를 대하고 진단하고 처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Figure 3> 藏府圖



<Figure 4> 手足經脈圖

「醫門立式」, 六經起止歌

手太陰經起自肺, 循臂內廉出大指.
 大腸陽明承次指, 循臂外廉交挾臑.
 足胃陽明承鼻傍, 環脣貫乳臚次指.
 太陰脾經承拇端, 上股絡胃脘間至.
 手少陰經心中起, 出乎腋下小指裏.

.....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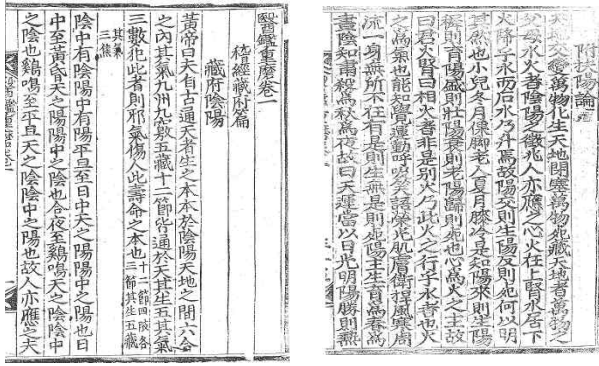
奇經督脈起人中, 上巔貫脊抵尻終.
 任脈起於中極下, 正循腹裏至頤嚨.
 衝脈潛行任脈內, 帶脈脇下橫束同.
 多氣多血陽明鄉, 多血少氣厥太陽.
 少血多氣三經有, 少陽少陰太陰行.¹¹⁾

이어 본론에 해당하는 권1 「稽經藏府篇」이 따라온다. 「稽經藏府篇」은 의학을 할 때 알아야 두어야 할 기본적 장부이론, 생리론, 병리론을 『동의보감』과 『소문』의 절구를 적절히 접합하여 27개의 소론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張介賓이 『類經』을 구성한 방식과 흡사하다.¹²⁾ 이런 이유에서 역대의방에 『동의보감』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유경』을 인용서 목록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한다. 권1의 끝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논설들은 『素問大要』의 후반에 실린 「素問附說」의 논설 5편 중에서 扶陽醫學論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3편을 다시 실은 뒤 「蟲有三尸辨」을 덧붙인 것이다. <Figure 5>

그만큼 의학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이 논설들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양론」과 「기혈론」은 부양의학의 핵심적 주장을 간명요결하게 제시하고 있고, 「신유양장변」에서는 『難經』의 「三十六難」과 「三十九難」에 나

11) 李圭峻. 『醫鑑重磨』. 「醫門立式」. 1922.

12) 안상우. 고의서산책154. 민족의학신문.



(A) (B)
 <Figure 5> 『醫鑑重磨』 초간본
 (A) 『醫鑑重磨』 卷1 「稽經藏府篇」, (B) 『醫鑑重磨』 卷2 「附扶陽論」

오는 腎有兩臟說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이 논설은 바로 장개빈의 左腎水右命門火論에 대한 비판이다. 장개빈은 좌측의 命門과 우측의 腎에 水火가 들어 있고 이는 모든 장부의 근원적 자양분이자 생명활동의 근원으로 본다. 즉 그는 命門과 腎에 水火가 모두 존재하고 이 水火가 모든 신체활동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命門과 腎의 水火를 濫補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사에선 그를 濫補學派의 창시자로 본다. 腎과 命門에 陰陽水火가 들어 있고 이것들이 생명활동의 핵심이고 의학적 처치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張介賓의 의학론이다. 이에 대하여 이규준은 반론을 제기한다. 먼저 신을 左命門火右腎水로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제기한다. 이는 곧 腎에 근원적 火가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자 二元論에 대한 비판이다. 세계는 하나의 근본, 火만이 존재하고 그 火는 바로 心에 깃들여 있다는 이규준의 핵심 의학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규준은 장개빈으로 대표되는 濫補學派에서도 인체는 溫養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신의 의 자양분을 확보하지만 濫補學派의 命門과 腎臟에 水와 火가 모두 들어있다는 二元論의 경향과 腎中心說을 철저히 배제한다.¹³⁾

첫 번째 책 권2는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龔信的 藥性歌를 재교정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글명이 있는 약재에는 설명 끝에 우리말 약재 이름을 병기하여 두었다. 한시의 일종인 四言詩 형식을 따라 네 자가 하나의 단위를 이룬 4절구로 이루어져 있어 총 16자로 구성되어 있다. 인삼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형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人蔘味甘, 大補元氣, 止渴生津, 調榮養衛 【습去蘆用反藜蘆, 畏黑豆】.” 네 자 단위의 네 구절로 이루어져있고, 뒤에 한글명,

수취, 금기 등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병기해 두었다.¹⁴⁾ 약재의 분류는 補藥 49종, 和藥 50종, 熱藥 17종, 寒藥 40종, 散藥 19종, 收藥 12종, 通藥 45종, 瀉藥 19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食補藥 25종으로 분류에 놓였으며, 製藥禁忌와 六陳良藥으로 끝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약재 분류의 마지막에 飲食補藥 25종을 따로 분류해 두었다는 점이다. 음식보약은 수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책에는 권3·4인 「百病總括篇上·下」가 들어 있다. 권3인 「百病總括篇上」에는 外感, 內傷, 內景을, 권4인 「百病總括篇下」에 外形, 雜病을 배치하여 『동의보감』에 담겨 있는 질병을 扶陽論의 견지에서 일목요연하게 削正하여 요약하고 있다. 外感 부분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內傷, 內景, 外形, 雜病의 순으로 배치하였는데, 이것이 중요한 질병의 순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동의보감』의 질병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다. 「百病總括篇上·下」는 序文에서 “凡論病藥者, 靡不采輯”이라 할 때 ‘病’과 ‘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진단치료편이라 할 수 있다. 문단의 구성은 통상 대문을 두 개의 七言으로 시작하며 이어 자세한 부연설명을 배치하고 있다.

太陽頭疼腰脊強, 發熱惡寒是表鄉

太陽膀胱爲本, 病頭疼脊強 少陽爲標, 與心爲表裏, 故發熱『入門』

● 發熱惡寒, 脈浮者, 屬表, 卽太陽證也. 『仲景』¹⁵⁾

세 번째 책은 권5·6인 「局方類選篇上·下」로 이루어져 있다. 「局方類選篇上·下」는 黃度淵의 『方藥合編』 편제를 차용하여 上·中·下統으로 처방을 분류하고 각각의 주치증과 처방의 구성약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어 처방을 빠른 시간에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局方類選篇」의 목적은 「百病總括篇」과 동일하다. 이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처방을 「백병총괄편」에서 확인하고 바로 「국방류선편」에서 처방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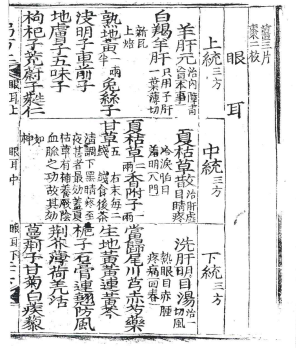
먼저 外感, 內傷, 內景이 상편인 5권에 배치되어 있고, 雜病이 하편인 6권에 배치되어 있다. 잡병에는 婦人, 小兒, 老人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뒷부분에 製造, 雜方, 禁忌 등등을 이어 배치하였다.

「국방류선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방약합편』이 『의감증마』에 미친 영향이다. 『의감증

13)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p.31, 52.

14) 李圭峻. 상계서. 「藥性歌」.

15) 李圭峻. 상계서. 「百病總括篇上」.



<Figure 6> 『醫鑑重磨』, 「局方類選篇上」

마』의 「국방류선편」 부분이 『방약합편』의 편제를 따랐다는 사실은 서지적인 영향력이지 의학적 내용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학적 내용의 측면에서의 『방약합편』과 『의감중마』의 관계는 보다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장개빈 의학의 흔적이 『의감중마』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이규준의 의학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의감중마』에는 明代의 의학자인 장개빈의 처방이 여러 곳에서 인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유사성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개빈은 이규준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陽氣를 溫養하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규준은 心陽火를 중심으로 한 반면 장개빈은 腎의 陰陽 모두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¹⁶⁾ 이 두 가지 의문은 바로 『의감중마』에 인용되어 있는 장개빈의 처방을 추적하면 밝혀질 것이다.

IV.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 『醫鑑重磨』에 미친 영향

『의감중마』라는 서명에서 ‘의감’은 『동의보감』을 의미하고 ‘重磨’은 ‘거듭 가다듬다’의 의미이다. 즉 『동의보감』을 가다듬어 더 나은 의학서적을 만들었다는 뜻이다.¹⁷⁾ 그런데, 이규준의 『동의보감』에 대한 견해는 『의감중마』의 序文에 잘 나타나 있듯이,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태도를 모두 드러낸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 색채가 강하다.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의학이 대부분 『東醫寶鑑』의 지대한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대까지의 우리나라 의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동의보감』이 원대와 명대까지의 모든 의서를 총집합하여 ‘病’과

‘藥’을 논한 것을 모두 채록하고 분류하여 의학의 바다와 같다고 평가한다. 먼저 그는 『동의보감』이 “산만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다”하고 “잡다하여 정치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결정적으로 陰을 돕고 陽을 깎아 내려 주인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素問』에서 말하는 바와 배치되는 것이 8·9할이며, 이로 인해 수백년 동안 제대로 질병에 대처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규준은 친구인 金善久의 요청에 따라 1904년에 부양의학적 견지에서 『黃帝素問』을 요약하여 1906년에 『황제소문대요』를 간행한 적이 있었는데, 김선구가 다시 『황제내경소문』의 뜻에 맞게 『동의보감』을 요약할 것을 요청해 와서 자르고 편집하여 6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¹⁸⁾ 이유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래의 본뜻을 잃은 『황제소문』을 갈고 닦아 『황제소문대요』를 지어 의학 원리를 밝혔고, 『동의보감』은 “대부분 음기를 돕고 양기를 깎는 것으로 主 삼아야 할 양기를 적대시하여, 『소문』의 뜻과 대부분 상반되고”, “산만하고 정치하지 않은데” 이를 갈고 닦아 부양 원리에 따라 치료와 처방의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 바로 『의감중마』이다. 이름에 ‘重磨’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더불어 『의감중마』는 『醫門入式』으로 시작하고 1권에 의학의 기본적 생리·병리를 배치하여 초학자가 접근하기 쉽게 하였고, 이규준의 친구 김선구가 『의감중마』에 대하여 “이것은 『소문』의 결정체이다. 정미한 뜻은 『내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로써 입문한다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감중마』가 『동의보감』을 부양론에 맞게 산정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에 입문하는 입문서로서도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의감중마』는 서명의 의미상 『동의보감』을 거듭 갈고 닦아 진면목을 드러나게 하였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편제상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의 장점을 따서 만들었고,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실려 있지 않은 『황제내경』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동의보감』 원문 중에서 부양론의 견지에서 맞지 않은 부분은 다시 고쳐 썼다. 특히 부양론의 시각에서 『동의보감』 이후 이루어진 의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의감중마』는 『동의보감』과는 상당히 다른 독자적 저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조선후기 의학서에서 장개빈의 처방이 자주 인용

16) 권오민. 위의 논문. p.52.

17) 李圭峻. 상계서. 『醫鑑重磨序』.

18) 李圭峻. 상계서. 『醫鑑重磨序』.

19) 李圭峻. 상계서. 『醫鑑重磨序』.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방약합편』이다. 『방약합편』에는 상당수의 장개빈 처방이 인용되어 있다. 『의감중마』의 국방유선편에도 장개빈의 처방이 다수 인용되어 있다. 理陰煎·大和中飲·舉元煎·五德丸·建理湯·煖肝煎·金水六君煎·六安煎·壯原湯·何人飲·滋腎保元湯·消痰膏·壽脾煎·加美八珍湯·柴歸飲 등이 바로 『경약전서』에서 장개빈이 창방한 것들로 『의감중마』에 인용되어 있는 처방들이다. 煉靈砂法이라는 靈砂製造法도 『경약전서』에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⁰⁾ 주지하다시피 하인음은 『경약전서』에서 장개빈이 창방한 처방이다. 일단 『의감중마』, 『방약합편』, 『경약전서』의 하인음을 서로 비교해 보면 처방에 대한 설명의 분량이 『경약전서』, 『방약합편』, 『의감중마』의 순이다.

『의감중마』의 何人飲²¹⁾

【氣血俱虛，久瘧不止，截瘧如神。『景岳』】

何首烏三錢至一兩，人參二三錢至一兩，當歸二三錢，陳皮一二錢，煨薑三片，多寒三五錢，或酒水相煎服

『방약합편』의 何人飲²²⁾

■ 截瘧 如神 凡氣血久虛 久不止 ○ 或酒水相半煎

何首烏三錢至一兩，人參三五錢或一兩，當歸二三錢，陳皮(大虛不必用)二三錢，姜三片(多寒至三五錢)

『경약전서』의 何人飲²³⁾

截瘧如神。凡氣血俱虛，久瘧不止，或急欲取效者，宜此主之。

何首烏 自三錢以至一兩，隨輕重用之。當歸二三錢，人參三五錢，或一兩，隨宜，陳皮二三錢，大虛者不必用，煨生薑三片，多寒者用三五錢。

水二鍾，煎八分。於發前二三時，溫服之。若善飲者，以酒一鍾，浸一宿，次早加水一鍾煎服亦妙。再煎不必用酒。

『의감중마』에 인용된 대부분의 장개빈 처방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이는 『의감중마』에 나오는 하인음을 비롯한 장개빈 처방이 『경약전서』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고 『방약합편』을 통하여 재인용되었다는 가설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아래의 육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의감중마』의 六安煎

【治風寒咳嗽，痰滯氣逆。『景岳』】

半夏 白茯苓 各二錢，陳皮 杏仁 甘草 各一錢，白芥子七分，薑五片。

冬月加麻桂，寒熱加柴蘇。

『방약합편』의 六安煎

■ 治風寒 咳嗽 痰滯 氣逆

【活套】 冬月加 麻 桂 ○ 頭痛加 芎 芷 葛 荊 ○ 寒熱加 柴 蘇

半夏 白茯 各二錢，陳皮 杏仁 甘草 各一錢，白芥子 七分，姜五片

『경약전서』의 六安煎

治風寒欬嗽，及非風初感，痰滯氣逆等證。

陳皮一錢半，半夏二三錢，茯苓二錢，甘草一錢，杏仁一錢，去皮尖切，白芥子五七分，老年氣弱者不用

水一鍾半，加生薑三五七片，煎七分。食遠服。凡外感風邪欬嗽而寒氣盛者，多不易散，宜加北細辛七八分或一錢。若冬月嚴寒邪甚者，加麻黃桂枝亦可。若風勝而邪不甚者，加防風一錢，或蘇葉亦可。若頭痛鼻塞者，加川芎白芷·蔓荊子皆可。若兼寒熱者，加柴胡蘇葉。若風邪欬嗽不止，而兼肺胃之火者，加黃芩一二錢，甚者再加知母石膏。所用生薑，只宜一片。凡寒邪欬嗽痰不利者，加當歸二三錢，老年者尤宜。若氣血不足者，當以金水六君煎與此參用。凡非風初感，痰勝而氣不順者，加藿香一錢五分。兼脹滿者，加厚朴一錢，暫開痰氣，然後察其寒熱虛實而調補之。若氣虛猝倒，及氣平無痰者，皆不可用此。

그러나 우리는 하인음에서 이런 가설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아님 복용법 부분이다. 『의감중마』에는 복용법이 “煨薑三片，多寒三五錢，或酒水相煎服”으로 되어 있다. 『景岳全書』에는 “煨生薑 三片，多寒者用三五錢”으로 되어 있으나 “或酒水相煎服”이란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方藥合編』의 何人飲에 “或酒水相煎服”으로 되어 있어 문구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或酒水相煎服”은 바로 이규준이 『의감중마』를 저술할 때 『방약합편』을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다.

또한 建理湯에서는 장개빈의 처방을 인용하면서 복용법 부분에서 『방약합편』의 것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는 이규준이 장개빈의 처방을 인용할 때 최소한 『방약합편』을 상당히

20) 煉靈砂法을 『景岳全書』에서 인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21) 李奎峻, 상계서. 『百病總括篇下』.

22) 黃道淵. 『證脈 方藥合編』. 남산당. 1977.

23) 張介賓. 『景岳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참고하였다는 또 다른 직접적인 증거이다. 사실 이런 『방약합편』에 나오는 문구의 직접적인 인용은 장개빈의 처방을 인용하는 경우 외에도 다수 있다.

『의감중마』의 建理湯

【治脾胃虛冷, 心腹刺痛, 乃養脾培元之藥也. 『景岳』】
人蔘五錢, 乾薑 桂枝 各二錢, 白朮 白芍藥酒炒黃 各一錢
甘草灸五分.
【『活套』加陳皮 青皮, 名治中湯.】

이외에 『의감중마』에는 인용 출처로 ‘內局’이 언급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千金廣濟丸,²⁴⁾ 萬病無憂膏,²⁵⁾ 造豆豉法²⁶⁾이 그것이다. 『방약합편』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문장이 거의 동일하다. 「국방류선하」에 나오는 ‘諸傷’에는 출처로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을 함께 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 『방약합편』에 인용되어 있는 『동의보감』을 재인용하거나, 『동의보감』에는 나오지 않고 『방약합편』에만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의 전체 치료법 배열순서는 『방약합편』과 거의 동일하고, 『동의보감』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의감중마』에 인용되어 있는 『동의보감』 인용 부분은 『방약합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좀 무리를 감수하고 말한다면, 최소한 「국방류선편」은 『방약합편』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감중마』 중에 인용되어 있는 장개빈의 처방들도 주로 『방약합편』을 많이 참고하여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약하면 이규준이 『의감중마』를 저술할 때 『방약합편』을 상당히 참고하였으며 『동의보감』에는 나오지 않으나 『방약합편』에 나오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개빈의 처방들은 『방약합편』을 통해 접하지 않았나 하는 적극적인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V. 결 론

그간 이규준의 부양의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黃帝內經素問大要』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醫鑑重磨』에 대한 연구나 이에 기반한 부양의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였다. 사실 이규준의 『황제내경소문대요』와 『의감중마』

가 그의 부양의학의 양대산맥이라는 점에서 『의감중마』에 대한 연구도 『황제내경소문대요』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의감중마』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와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의감중마』를 통해 이규준의 부양 의학을 바라보는 향후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재 『의감중마』는 네 가지 판본이 알려져 있다. 1922년 목판으로 초간되었고, 이후 이규준의 제자로 알려진 南谷朴熙姓이 1981년 현토를 달고 출간하였다. 無爲堂 李元世가 스승의 의학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동의보감』 편제에 보다 유사하게 「백병총괄편」의 각항목 아래에 해당하는 「국방류선편」의 처방을 통합하여 하나의 편으로 만들었다. 이 판본이 현재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다. 1999년에 대성의학사에서 무위당본을 가지고 이원세가 강의한 것을 제자들이 녹취, 정리한 강의안이 출간되기도 하였고, 2000년도에 대성의학사에서 초간본을 현대적 출판물로 다시 출간하기도 하였는데, 초간본의 착간 부분을 다수 교정하였다.

『의감중마』는 「醫門入式」으로 시작하고 1권에 의학의 기본적 생리·병리를 배치하여 초학자가 접근하기 쉽게 하였고, 이규준의 친구 김선구가 『의감중마』에 대하여 “이것은 『소문』의 결정체이다. 정미한 뜻은 『내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로써 입문한다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감중마』가 『동의보감』을 부양론에 맞게 산정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에 입문하는 입문서로서도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의감중마』를 저술한 동기가 의학 초심자들이 의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규준이 그의 철학에서 중요시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要約인데 의학에서도 요약과 정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요약 정신은 그의 철학에서 의학까지 일관되게 관통되고 있는 사상이다. 『石谷心書』의 편제도 매우 간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모아놓았듯이 『의감중마』도 꼭 환자를 대하고 진단하고 처방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뽑아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의감중마』는 동의보감을 모본으로 하여 의학의 원리와 치료방법을 간명하게 기술한 의학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의보감』이후의 의학적 성과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최소한 국방유선편은 『방약합편』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장개빈의 처방도 상당히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의감중마』는 단순히 『동의보감』을 삭제, 편집한 것이 아니라 『동의보감』 이후의 의학적 성과를 부양의학적 견지에서 충실히 흡수하면서 저술된 저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감중마』는 『방약합편』이 20세기 한의학의 발

24) 李圭峻. 상계서. 「局方類選篇上」. 內傷·虛勞.
25) 李圭峻. 상계서. 「局方類選篇上」. 製造.
26) 李圭峻. 상계서. 「局方類選篇上」. 製造.

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한다.

VI. 참고문헌

1.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2. 권오민. 「石谷 李圭峻의 人間觀과 醫學論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0.
3. 김남일. 「Lee Kyu-joon's study on Hwangdineijing in the late Choson era」.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6; 10(1).
4. 김적. 「李圭峻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9.
5. 김중환. 「『소문대요』의 저작동기와 석곡의학의 특질」. 『대한한의학원전외사학회지』. 2004;17(4).
6. 김창건. 「『黃帝素問大要』의 編制에 대한 研究」.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2007.
7. 안상우. “『의감중마』”. 고의서산책154. 민족의학신문.
8. 李圭峻. 『素問大要』(필사본).
9. 이규준. 『醫鑑重磨』. 1922. (초간본, 경북대 도서관 소장)
10. 이규준(박희성 편·현토). 『의감중마』. 1981.
11. 이규준. 『醫鑑重磨』. 일산:대성출판사. 2000.
12. 이규준(이원세 편). 『醫鑑重磨』.
13. 張介賓. 『景岳全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4. 錢超塵. 「『素問大要』 研究」. 『대한원전외사학회지』. 2006;19(3).
15. 황도연. 『증맥 방약합편』. 서울:남산당. 1977.
16. 황원덕. 「석곡 李圭峻의 부양이론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3).
17. 황원덕. 「석곡 李圭峻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9;12(2).